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1. 2(월)	
		작 성 · 문 의	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/ 사무관 서수철 (Tel. 044-200-2232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황교안 권한대행, 새해 첫 업무 시 방역상황 점검으로 시작

- AI 완전 종식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 대응체제 유지해줄 것 당부

-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2일(월)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「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(AI) 일일점검회의」에 참석하였다.
- 지난 6일 동안 중앙과 지방,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AI 의심 신고건수가 총력 대응하기 前 주에는 하루 평균 6.4건이었으나 지난 7일 동안에는 1.7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.
 -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원칙 하에 공무원, 의용소방대, 민간 인력과 군병력까지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AI 발생 당일에 살처분을 모두 완료하고 있으나,
 - AI가 천안, 안성 등 AI 발생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재발생하고 있고, 야생철새의 국내 지역간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촘촘한 총력대응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 자체단체에 지시하였다.

- 첫째, AI가 발생했던 지역은 철저한 매몰지 관리와 청결한 농장 유지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AI 재발생과 확산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고,
 - 둘째,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새에 대한 예찰강화,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AI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에 주력해야 하며,
 - 셋째, 만일 AI가 발생하는 경우 24시간내 살처분 완료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즉일즉일 종결시켜 나가고 사후관리도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아울러, 철저한 AI 방역활동을 추진하면서 방역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즉각 해결해 나가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와 함께, 현재 AI 대응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「AI 일일점검회의」가 AI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써 지금까지 현장의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시하였다.
-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장관의 책임 하에 「AI 일일점검회의」를 중심으로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해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.
-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, 민간 인력 등 방역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.